

▶ 9월 20~24일 개최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요 발표

'때깔 나는 소리'로 다양성 구사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박재천)가 2017년 축제 개요를 발표했다.

9월 20~24일 열리는 이번 축제는 Color of Sari(때깔 나는 소리)를 주제로 다양한 소리의 스펙트럼을 6개 분야 165회의 공연에 담아낸다.

소리의 영역은 다채로운 실험과 시도로 확장된다. 귀로 듣는 소리에서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소리로, 익숙한 소리에서 낯설고 생소하고 호기심 어린 소리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며 소리의 스펙트럼을 구사한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점은 서막 행사로 '미디어 체험전시(가제 9월7~24일)'를 기획해 우리 전통의 미래적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의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최첨단 디지털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소리를 이용한 교육·체험·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을 흡입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초대형 가무악 공연을 위해 놀이마당의 변화를 꾀한다.

전북도립국악단과 정음시립국악단 등 160여 명의 지역 문화예술인과 인프라로 연출되는 가무악 '천명'을 놀이마당 무대에 올린다. '동학'을 주제로 작품은 우리 지역의 저항의식과 정의를 향한 갈망과 투쟁을 그린다.

공연 성격에 걸맞게 놀이마당 무대는 새로운 대형 가무악 형태의 가설무대로 탈바꿈하여 관객들에게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6일 박재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2017년 소리축제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소리 이용한 체험요소 가미 '미디어 체험전시' 기획

가무악 '천명' 놀이마당 무대에 동학 주제로 저항의식 담아 관객들에게 무료로 선보

올해도 체류형 축제 이어가 공연예술제, 생활형 축제로 가상체험 시설도 설치

축제는 전담 내 유희공간 활성화를 시도하는 '체류형 축제'로의 실험은 올해도 이어간다.

마니아를 위한 공연예술제는 물론 일반 대중을 위한 생활형 축제로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모악당 앞 공간을 '가든 스테이지'로 개발해 휴식과 공연(더블 스테이지 형태)을 겸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체류형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월드뮤직 관객들을 위해 연지홀 앞에 '월드뮤직 전용관'을 설치하고 월드뮤직과 전통공연의 운치를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모악당 로비에는 가상체험 시설 '전통은 철단이다'(가제)관을 설치하여 판소리 공연 무대의 역동성과 흥미진진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난해 호평을 바탕으로 올해도 모악당 콜로세움 형태의 무대를 추진한다.

3면의 대형 스크린은 영상미를 더욱 강조하여 세계적인 명작(회화 작품 중심)이 판소리 대목마디의 심상과 느낌을 극대화해 전달함으로써 관객들의 감성을 끌어올리고 공연 몰입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일명 '판소리 갤러리'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정해은 기자

김주열 열사 중학교 시절 친필 유품 발간

김주열 열사의 중학교 시절 친필이 실려 있는 메모 책이 발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원문화원(원장 김찬기)은 4월 7일 임실군 오수면에서 근대사 자료를 수집하며 추억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호씨가 과거 수집해온 자료를 정리하던 중 1959년 김주열 열사가 금지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박병금 친구에게 남긴 졸업 축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을 발견하고 남원문화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16쪽 크기의 낱장 67매를 실로 묶어 책 형태로 매었으며 표지에 'Memory' 표제와 '금지중학교졸업, 단기 4292년 3월 2일 졸업'이라고 쓰여 있다.

이 책 16번째 장에 실려 있는 김주열 열사가 쓴 내용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별명, 희망 등 기본사항을 공통사항이 적혀 있고 내용은 "졸업을 축하 한다.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날때를 생각해 지금은 헤어졌을 지라도 장래 또 한 번 만나 보세" "군의 성공을 바라며" 라고 글을 남겼다. 특히 희망란에 "은행 사장"이라고 적혀 있어 김주열 열사가 마산상고에 진학하게 된 동기를 엿볼 수 있고 그동안 김주열 열사의 장래 꿈이 교사인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친필 축하 글에서는 은행 사장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한자로 쓴 이름과 한글로 쓴 내용의 글씨체를 보면 상당히 뛰어난 필체를 느낄 수 있고 내용도 5행 57자로 비교적 짧고 간단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문장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공연 & 전시 ◀◀

노정희 '봄 꿈, 희망으로 물들이다' 전 30일까지

원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서양화가 노정희를 초청해 '봄 꿈, 희망으로 물들이다' 전을 오는 30일까지 연다.

'봄 꿈, 희망으로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원주의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전이다.

노정희 작가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예스러운 것을 현대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작가는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소재 중에서도 색채가 풍부한 조각보, 꽃담, 창살, 민화, 오방색, 지수 등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는다.

노 작가는 "전통과 한국적인 색채와 향기가 살아 숨쉬며, 그 안에 나의 정신과 영혼을 담아 표현하려는 도전과 탐구의 여행을 계속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달한 작품세계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고 희망으로 물들이기를 기원한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원광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노정희 작가는 현재 한국미술협회, 상형전, 여류구상작가회, 토색회, 노령회회원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으로 제3회 미국-워싱턴 전, 원주 '풍경'을 상상 이상으로 담다', 테마로 보는 전북미술전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선도적 활동과 역할을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박재천 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연임 확정

박재천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김찬)는 6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조직총회를 통해 박 위원장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임기는 오는 5월부터 3년간이다.

소리축제 프로그래머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책임과 권한을 높여온 박 위원장은 집행위원장으로 재임한 지난 3년 동안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아왔다.

이로써 박 위원장은 가깝게는 오는 9월에 치러질 소리축제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고, 향후 축제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책임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지역 문

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기여도가 높다는 평을 받는다.

그동안 지역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의 예술적 재능과 능력을 지역문화를 가꾸는데 발휘하는 한편, 특유의 친화적이고 탁월한 예술적 감성으로 소리축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는 61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작곡을 연주를 것이 계기가 되어 밴드부, 음악대학(클래식 작곡), 군악대, 오케스트라, 그룹사운드, 월드뮤직, 판소리, 사물장단과 굿장단, 프리뮤직, 현대음악, 전위재즈의 역사 등 다양한 음악의 경험과 교육을 토대로 즉흥음악 타악 연주자가 되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부안군-주한중국문화원 상호문화교류 협약

차오 수 민족화전 전시회도 열어

부안군(군수 김종규)과 주한중국문화원(원장 사서립)은 상호문화교류를 위한 협약식과 함께 중국 56개 소수민족의 특징을 잘 표현한 중국 유명화가 차오 수의 민족화전 기획전시회를 가졌다.

6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주광주총영사관(순원수 총영사)과 우석대·원광대 공자학원, 부안군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영 공연을 시작으로 협약체결과 전시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중국 문화예술공연과 전시 등을 공동 주최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교환하고 차오수 중국화가 민속 화전 기획전시회를 공동 주최하여 오는 20일까지 부안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교류 협약은 부안에서 능동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고민하는 대(對)중국 교류를 선점하려는 차이나교육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려는 부안중국문화원을 지난해 6월 개원하였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려고 이 행사도 마련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부안군은 주한중국문화원과 공동으로 기획전시와 공연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주간 등 군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순창이 참 좋다

순창군 귀농·귀촌 상담전화
063)650-5172~5174

순창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gosunchang.com

귀농·귀촌 최적지 순창
순창이 참 좋다!
순창 귀농은 더 좋다!